

관세청 - 우정사업본부 손 맞잡고, 내륙 물류거점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한다

- 2월 10일 업무협약 체결 ... 동서울우편집중국서 가동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부산우편집중국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 협력
 - 공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집중국서 '2차 저지선' 가동해 마약류 빈틈없이 차단
- 【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병진)는 2월 10일(화) 서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되었던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하여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하에 마련되었다.

<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780	460	329	420	318
금액	368	308	251	139	107

* 우편집중국 : 관할 우체국의 국내우편과 국제우편 물품을 모아 목적지에 따라 분류하여 관할 우체국으로 보내는 우정사업본부의 물류 허브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월)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의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다.

양 기관은 이를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동서울우편집중국의 2차 저지선이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내륙으로 촘촘하게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❶ 국제우편 거점에서의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우편 경로의 마약류 밀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❷ 마약류 2차 검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빈틈없는 마약류 차단망을 구축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 ❸ 우정사업본부는 마약류 검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및 제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관세청은 전문 검사 인력과 첨단 검색 장비를 투입하여 검색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
- ❹ 마약류 적발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며, 마약류 밀반입 근절을 위한 물류 통제 등 빈틈없는 마약 차단 및 수사 공조 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마약 차단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힘을 보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우편 물류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세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민경욱 (042-481-7832)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0-8310)
		담당자	사무관	한재현 (044-200-8371)

